
 <b>인천광역시</b>		<b>보 도 자 료</b>		 <b>인천의꿈*</b> <b>대한민국의미래</b>	
		배포일자	2022년 10월 30일(일) 총 2매		
담당 부서	안전정책과	담당자	• 안전기획담당 김수진 ☎440-5731 • 담당자 김은정 ☎440-5732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복 시장, 이태원 사고관련 신속한 시민 피해상황 파악과  
 안전사고 대응 강력 지시**  
 - 유정복 시장, 30일 오전 비상안전점검회의 주재 -  
 - 인천시민 피해현황 파악, 실종신고 채널 운영, 유사 안전사고 방지 대책 강구 지시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9일 밤 헬러원 데이를 맞아 서울 이태원 동 일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명사고와 관련해 30일 오전 9시 유정복 시장은 비상안전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시민 피해상황의 신속한 파악과 대규모 행사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점검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헬러원데이 축제로 밀집된 인파가 일부 넘어지면서 압사사고가 발생해, 30일 06시 현재 소방청 발표 인명피해 사망 149명, 부상 76명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29일 구급차와 구난차 등 소방장비 11대와 소방인력 40명을 사고 현장으로 긴급지원해, 현장에서 외국인 2명을 포함한 응급환자 14명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이날 09시 30분 현재 인천시민의 피해상황은 확인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실종자 신고건이 다수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긴장을 늦추지 않는 상황이다. 시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헬러원 축제를 자체해 줄것과, 인천시민 실종자가 있을 경우 시 재난상황실(440-1880~1)로 연락해 줄 것을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했다. 또한 인천시민 피해확인을 위해 서울상황실에 시 공무원을 급파한 상태다.

유정복 시장은 “사고 수습을 위해 소방장비와 소방의료인력 등 최대한 지원” 하고, “인천 연고 사상자 파악은 물론 ‘실종자 신고 창구’를 마련해 가족들에게 신속하게 안내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오늘로 예상되는 관내 헬러원데이 축제 관련해서 철저하게 대비하되, 비좁고 경사진 곳 등 취약지역에 대해 일제 현장점검을 실시할 것” 과, “향후 유사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종 축제장과 스포츠행사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 관련 사진은 행사(10)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될 예정입니다.